

## 닭고기 업계 총체적 위기, 돌파구 마련위해 똥쳐야 한다

본지 · 김한웅 상무



짬뽕더위와 태풍의 영향으로 난리를 치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의 문턱을 넘어섰다.

국내외로 불어 닥친 경제 위기로 인하여 풍요롭지는 않지만 수확의 상징인 추석 명절도 보내고 우리 닭고기 업계로서는 본격적인 위기관리의 시기에 도입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축산업계에 닥쳐올 위험상황에 대해 예고한 바 있지만 우리업계가 극복해야 할 상황들은 너무나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계열화 사업체의 경우 이미 닭고기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 강구에 착수했으며 타 계열사들도 후속조치가 속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곡창지대의 경우 곡물 수확기인데도 불구하고,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대두, 옥수수 수확량이 20% 이상 감소, 곡물가격이 급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고곡가 현상은 당분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적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곡창지대의 이상기후로 인해 생산량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곡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곡물 선물 시장에 몰리고 있는 투기세력의 본격적인 가세로 곡물가 상승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물거래로 인한 곡물 물량의 확보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두, 옥수수가격 상승의 영향이 내달부터는 국내 사료가격에도 영향을 끼쳐 닭고기 생산비가 최소 2~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일본을 벤치마킹해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료안정화기금” 설치를 위해 의원입법 추진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 축산농가, 사료회사 등이 이해관계가 얽혀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사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문제는 국내외 경제위기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꽂꽂 움켜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어렵다 해도 닭고기 소비시장은 소폭이나마 성장을 지속해왔지만 올 하반기로 들어서면서부터 성장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생산비는 급증하고 소비는 줄고 생산규모는 늘고 지금까지 닭고기 업계가 겪어온 어려움 중 가장 심각한 위기가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기불안으로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 닭고기 생산원가가 올라 지금보다도 더 비싼 고기를 생산·판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 쉽게 돌파구를 찾을 방안이 궁색해지는 것이다.

계열화사업자들도 주도적으로 경영방식 개선,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불황을 극복해내기 위한 방안강구에 돌입했지만 이미 전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적자 누적에다 침체된 소비경향의 지속으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런 상황들이 계열화사업자들의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생산물량을 늘려나가는 정책을 펴왔지만 과잉생산이라는 철퇴를 맞으면서 이제는 원종계, 종계 감축에 대한 의견들이 업계 곳곳에서 제기되는 등 생산물량 감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계열주체인 사육농가든 닭고기 업계 전체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닭고기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불황의 늪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닭고기 소비위축, 과잉생산, 생산비 폭등 등 3대 악재가 동시에 불거지는 이 상황에서 들고 나올 수 있는 대책이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닭고기 홍보를 통해 소비확대 유도”, “생산조절”,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이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어느 집단 혼자서만 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육계사육농가, 계열회사업자, 관련업계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싶다. 